

# 한글소리 이름짓기의 비판적 고찰

---

권익기

한국명리성명학회 책임연구원, 성명학 전공  
kwonikki@naver.com

---

- I. 머리말
  - II. 한글 이름짓기 개관
  - III. 한글소리 이름짓기 고찰
  - IV. 맺음말
-

## I. 머리말

---

이름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기억되는 자산이다. 두 음절의 단어이지만 당사자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타인과 구분되는 표지이다.<sup>1</sup> 모든 문명국가에서 이름은 소리와 문자로 존재하는 보편성이 있고,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는 특수성도 존재한다.

한자는 중국 문자를 차용한 것이지만 한글은 우리말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자이다. 작명 역시 우리말을 문자화한 한글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한글로 먼저 지은 후 그에 맞추어 한자를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문자가 없을 때도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소통했으므로 이름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훈민정음을 세종 28(1446)년에 반포하였기에 한글 이름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 깊지 않다.

1990년대 급격히 늘어난 한글 이름짓기는 유형이 많지 않아서 한글자의 (字意)와 한글오행, 한글소리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세부 유형이 포함된다. 개운(改運)을 고려하지 않은 넓은 의미의 성명학인 한글 자의(字意)는 오로지 우리말의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만 짓기에 작명이 쉽고 문제점도 많지 않다. 그러나 사주명리학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운이 목표인 역학 관점의 성명학인 한글오행과 한글소리는 이름짓기도 상대적으로 어렵고 포함된 유형이 많기에 연구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다행히 한글오행은 최근 선행연구<sup>2</sup>가 상당히 발표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지만 한글소리는 개선을

---

1 권익기, 『한국 성명학의 작명 관련 비판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8), 1쪽.

위한 문제점 위주의 비판적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고는 한글소리 이름짓기의 개선을 위해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II장에서 한글 이름짓기의 역사부터 먼저 살펴보고, 작명법에 의하여 한글자의와 한글오행, 한글소리로 나누어 한글 이름짓기의 유형도 살펴본다. 이어서 III장은 기존 이론을 체계화하여 1990년대 전후 시작되어 널리 알려진 한글소리의 작명 방법과 이의 개선을 위한 연구사항 위주로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은 본고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한글 이름짓기 개관

### 1. 한글 이름짓기의 역사

이름은 당사자를 타인과 구분하여 부르는 소리이자 기록하는 문자이다. 우리의 이름은 애초 순수한 우리말인 고유어 소리로만 존재하다가 발견한 토착 문자로 기록하였을 것이고, 한자 유입 이후에는 이를 차용해서 향찰, 이두 등으로 기록하였다.<sup>3</sup>

신라 경덕왕대(742-765) 당나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와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관명, 지명과 함께 이름도 중국식<sup>4</sup>으로 짓는 것이 상층부터

---

2 한글오행 이름짓기의 비판적 연구는 김만태(2015)의 학술논문을 시작으로 이종훈(2018), 권익기(2018), 이재승(2019a)의 박사학위논문, 김기승·이종훈(2019), 김만태(2019), 이재승(2019b)의 학술논문 등이 대표적이다.

3 최범훈, 「한자차용고유인명 표기체계연구: 금석문·고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76), 5-11쪽.

4 중국식 이름은 한 글자 성씨와 두 글자 이름을 한자로 기록하는 현재 우리의 일반적인 성명 형태를 말한다.

보편화되면서 고유어 이름은 줄어든다.<sup>5</sup> 하지만 고려 문종대(1046-1083)에 성(姓)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과거시험 자격을 주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때 까지 상층조차도 중국식 이름이 정착하지 못하고 고유어가 많았으므로 상층 이외 계층은 대부분 고유어였음이 추정된다.

조선시대 초까지도 고유어 이름이 많았으나 그때까지는 한글이 없어서 한글 이름의 역사도 없었지만,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세종 28(1446)년에 반포하면서 한글 이름의 역사가 시작된다.<sup>6</sup> 그러나 조선시대 초에 문물제도 전반이 중국식으로 정착되면서 이름도 중국식 한자로 확립되었고,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도 상층은 한자를 주로 사용했기에 한글 이름은 일반화되지 못했다. 연산군(1494-1506)은 “또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sup>7</sup> “조사(朝士)의 집에 있는 한글로 구결(口訣)단 책은 다 불사르되 (...)”<sup>8</sup> 등을 전교하는 탄압까지 저질렀고, 한글을 암글(암글), 언문 등으로 비하하기도 했으므로 한글 이름은 조선시대에 일반화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상층사회 관명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을 뿐, 관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이나 하층, 특히 노비의 이름은 대부분 고유어로 한글 혹은

---

5 김중택, 「한국인의 성명정착 과정연구」, 『국어교육연구』 23(1991), 6쪽.  
 6 한자어와 고유어는 어중에 따른 분류로, 이중 한자어는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는 이름까지 포함하는 한자 어휘에 의해 분류한 이름이고, 고유어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순우리말의 소리로만 존재하던 이름과 한글 창제 이후 순우리말의 한글 전용 이름이다. 한자 이름과 한글 이름은 성명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작명의 표기수단인 문자가 한글이면 한글 이름, 한자면 한자 이름이다. 다른 견해도 없지 않으나 이름 짓기를 살펴보는 본고에서는 표기수단인 문자에 의하여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으로 대별하고 한글 이름을 세분화한 한글자의 이름짓기 유형에 고유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燕山君日記』 燕山 10(1504)年 7月 20日. “且今後諺文勿教勿學, 已學者亦令不得行用, ……”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燕山君日記』 燕山 10(1504)年 7月 22日. “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 ……”

한자를 빌려서 기록하였다. 1449년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에 기록된 47명의 이름은 막동, 타내, 올마대, 도티, ㄹ리대 등으로 모두 고유어 한글이다. 이보다 147년 후인 1596년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에도 상민 남자 병정 856명은 중국식 이름이나, 816명의 남노(男奴)는 성도 없이 이름만 나타난다. 또한 1617년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속의 노비 이름과 1687년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에서도 고유어 한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갑오개혁 후인 1909년 「민적법(民籍法)」 시행으로 남녀와 신분 차별 없이 성씨와 본관, 이름을 신고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모든 국민이 한 글자의 성씨와 두 글자의 이름으로 구성된 세 글자 성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최초 민적부(民籍簿) 작성 시에도 성씨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1.3배였다는<sup>10</sup> 것을 보면, 중국식 한자 이름을 사용한 상층과 달리 중층 이하 많은 사람은 고유어로 한글 전용, 혹은 한자를 빌려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천명장수(賤名長壽) 사상에 의한 도야지(道也之), 개똥이(介童伊) 등과 여성 호칭인 아기(阿只 岳伊),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에 의한 섭섭(攝攝)이 등의 아명이나, 돌이(鬻伊) 순돌(順鬻) 등의 친숙한 고유어 이름을 부정하다가<sup>11</sup> 1923년부터 한글만 기재한 이름은 공부(公簿)에 등록하기를 거부하였다.<sup>12</sup> 이때부터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우리의 이름 체계가 급속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모든 계층이 고유어에 의한 한글 이름을 거의 짓지 않게 되었다.<sup>13</sup>

9 최범훈(1976), 앞의 논문, 16-18쪽; 김중택(1991), 앞의 논문, 22-24쪽.

10 최범훈(1976), 위의 논문, 20쪽.

11 이정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변화 양상들」, 『역사민속학』 49(2015), 91-102쪽.

12 朝鮮總督府 法務局 編纂, 『朝鮮戶籍及寄留例規』(鮮光印刷株式會社, 1943), 332쪽.

1940년대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전후하여 구마사키 겐오(熊崎健雄, 1881-1961) 등의 일본 성명학을 습득한 작명가들이 이름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수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수리성명학이 도입되었다.<sup>14</sup> 그 후 한글오행은 신경준(1750)의 『훈민정음운해』에 따라 오행을 배속하여 1950년대부터 우리가 가장 널리 활용한 수리성명학의 보조 수단으로 일부에서 활용된다. 1980년대 시작된 한글 이름짓기가 1990년대에 유행하고 1987년 기존 성명학과 많이 다른 한글소리 유형인 파동성명학이 알려지면서 한글오행도 활성화되어 한글 이름짓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된다.<sup>15</sup>

한글오행을 국권 회복 이전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한자 이름짓기인 수리성명학의 도입 및 사용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구마사키 겐오가 수리영동(數理靈動)과 함께 음령(音靈)과 음양(陰陽) 오기(五氣)의 배합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sup>16</sup>, 1940년대 창씨개명을 전후하여 도입한 것은 수리성명학에 의한 한자 이름짓기이지<sup>17</sup> 한글오행 이름짓기가 아니다. 창씨개명은 우리의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고 이름 역시 일본 독음을 강압한 것이지 우리 한글로 개명할 것을 권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 당시 한글 이름짓기는 일반화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 국민 모두 한글 이름을 짓지도 못했던<sup>18</sup> 한글 이름의 암흑시대였다.

13 김슬옹·김불곤·신연희, 『한글 이름짓기 사전』(미래사, 1994), 37쪽.

14 김만태,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 성명학의 영향」, 『동아시아문화연구』 55(2014), 148-154쪽.

15 박승목, 『성명학의 이론 정립과 과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4-7쪽; 신상용, 『성명학의 작명원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47-48쪽; 조현아, 「성명학의 작명원리에 있어서의 오행연구: 훈민정음해례본과 현재 작명법에 적용되는 한글 오행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38-39쪽; 정정순, 「성명학의 유래와 작명원리에 관한 연구: 명리학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52쪽.

16 熊崎健雄, 『姓名の 神祕』(東京: 紀元書房, 2009), 183쪽.

17 김만태(2014), 앞의 논문, 148-154쪽.

일제 탄압으로 사라질 위기까지 겪었던 순수한 우리말인 고유어의 한글 전용 이름짓기는 국권 회복 이후 우리 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다시 시작된다. 1967년부터 진행된 서울대학교 국어운동학생회의 ‘고운 이름 사랑하기’ 대회와 1977년 발족한 ‘한글 이름 쓰기 모임’ 등을 중심으로 우리 고유어의 한글 전용 이름 짓기 운동이 전개되면서<sup>19</sup> 한글의 뜻으로만 이름짓는 한글 자의(字意) 유형이 자리잡는다. 1980년대 주체성이 강조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선호하는 한글 교육 세대가 늘어나면서 1990년대부터 한글 전용 이름은 계속 늘어나 2008년 16,680건 3.54%에서 2015년에는 34,843건으로 전체 이름의 7.7%까지 높아졌다.<sup>20</sup>

한글소리는 성명을 체(體)로, 태어난 해를 용(用)으로 보면서 육친을 붙이는 방법으로 1987년 이우람의 『후천운』<sup>21</sup>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지만, 태어난 해를 체로 보고 성명을 용으로 보면서 육친을 붙이는 정보국(1992)<sup>22</sup>과 같은 반대의 방법도 존재한다.<sup>23</sup> 1950년대에 『신성명학철리(1957)』의 「음파영동력(音波靈動力)」에서 이미 음파의 중요성과 음령 오행을 주음과 종음으로 나누어 연결 관계까지 설명하기도 했다.<sup>24</sup> 『비전 성명대전(1973)』은 성명학실전 7대 관찰 중 하나로 성명의 생명인 음파영동(音波靈動)을 강조하면서 일간 중심의 천간주성(天干主星) 및 지지종성(地支從星) 조건표를 소개한 것<sup>25</sup> 역시 확인된다. 동자삼작명학은 한글의 초·종성 자음과 중성 모음을

18 김슬옹·김불꾼·신연희(1994), 앞의 책, 37쪽.

19 박병찬, 「우리말 이름짓기의 실태와 전망: 여보,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새국어교육』 35(1982), 23쪽; 김슬옹·김불꾼·신연희(1994), 앞의 책, 38쪽.

20 「시기별 선호이름…… 1940년대 영수·영자에서 2010년대 민준·서연」, 《연합뉴스》, 2016년 5월 9일자.

21 이우람, 『후천운』(그루, 1987).

22 정보국, 『정보국의 작명보감』(밀알, 1992).

23 박승목(2005), 앞의 논문, 6-7쪽; 서소옥, 『정통성명학』(이담, 2017), 19쪽.

24 김계홍, 『신성명학철리』(평문사, 1957), 191-202쪽.

25 조봉우, 『비전 성명대전』(명문당, 1973), 8·406-408쪽.

분리하여 인연(인운)인자 치환표에 의거 숫자를 도출하여 인연인자의 결합과 NSM그래프로 인연과 성명의 초·중·말년 운세를 논하기도 한다.<sup>26</sup> 또한 일간(日刊)을 위주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찾고 육친법으로 분석한 후 배합이 좋은 오행을 선별한 다음 성명에 어울리는 글자로 한글 이름짓기를 하고 수리 획수와 수리오행으로 한자 이름짓기도 하는 음파메세지 성명학도 있다.<sup>27</sup> 이를 종합해보면 이우람이 그 이전 미완성으로 존재하던 여러 이론을 급증한 한글 이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글오행의 음령, 사주명리의 육친 등을 바탕으로 작명법의 체계를 세우면서 한글소리는 1990년대 전후 시작되어 알려지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 2. 한글 이름짓기의 유형

이름의 유형 분류기준은 이름의 종류, 사용문자, 작명법 등으로 다양하다. 이름짓기 방법 역시 다른 작명법을 일부만 바꾼 후 독창적인 비법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분하면 할수록 그 유형은 많아진다. 임삼엽은 작명법을 음령(音靈)오행과, 선후천(先後天)역상법, 공식(公式, 소리오행)작명법, 파동(波動)성명학 등 36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sup>29</sup> 그러나 김만태(2019)는 많이 사용되는 작명법을 81수리작명법과 수리오행작명법, 자원오행작명법, 초성발음오행작명법, 자음십성(子音十星)작명법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sup>30</sup>

26 남시모, 『동자삼 작명학』(가림출판사, 2000).

27 백재현, 『음파메세지 성명학』(삼한출판사, 2002).

28 박승목(2005), 앞의 논문, 7쪽; 김남석, 「성명학의 표의적, 표음적 이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56쪽; 안서현, 「성명학에서의 작명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18-19쪽.

29 임삼엽, 『작명 백과사전』(삼한출판사, 2007), 98-459쪽.



이중 한글 이름짓기는 본고에서 한글오행 이름짓기로 명명(命名)한 초성 발음오행작명법과, 한글소리 이름짓기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자음십성작명법이다. 이 두 유형 외에도 우리말의 좋은 뜻으로 이름짓는 오래된 한글자의 유형이 있으므로, 본고는 한글 이름짓기를 작명법에 의하여 한글자의와 한글오행, 한글소리로 유형을 대별하였다. 하지만 한글 이름짓기는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으로 먼저 구분한 후 한글 이름을 고유어식, 옥편식, 일상한자어식, 혼합식으로 세분하기도 한다.<sup>31</sup> 편하게 이름짓기와 일반 말 만들기 방식으로 이름짓기, 창의적으로 이름짓기, 전통 방식으로 이름짓기로 전혀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sup>32</sup> 등도 있다.

### 1) 한글자의 이름짓기

자의(字意) 이름짓기는 문자의 뜻으로만 작명하는 방법으로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도 자의 이름짓기 유형도 존재한다. 성명학의 기본 이론인 수리, 음양, 오행, 자원, 역상, 사주 등과 무관하고, 이름으로 운명을 고칠 수 있다는 개운론(改運論)도 주장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성명학으로 어문학 분야에 속한다.

한글자의 이름짓기는 일제 암흑기를 거쳐서 국권을 회복한 후 한글 단체의 우리 문화 찾기 운동으로 다시 시작되어 일반화되었다. 1967-1986년 서울대학교의 ‘고운이름 사랑하기’ 대회와 1990-1996년 연세대학교의 ‘한글 물결 한결 이름 온누리예’ 대회, 1992-1999년 한글학회의 ‘한글이름 한마당 대회’, 1997-1999년 한글 누리(주)의 ‘온라인 한글 이름 짓기 대회

---

30 김만태, 「모자음오행의 성명학적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2019), 73-74쪽.  
 31 김슬옹, 「한글이름(인명)의 새로운 범주화와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 12(2)(2004), 34쪽.  
 32 김형일, 『성명학 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자 통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37-38쪽.

수상 이름을 보면<sup>33</sup>, 한글자의 이름은 기존의 중국식 한자 이름과 상당히 다르다. ‘박차고나온노미새미나’와 같이 두 글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 글자 성명도 이름만 한글이 아니라 ‘진달래’, ‘한마음’처럼 성씨까지 뜻으로 연결하여 작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른 유형은 전문가나 집안의 어른이 작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글자의 젊은 부모가 작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산에꽃남아씨’, ‘금빛솔여울에든가오름’ 등과 같이 파격적이거나 이슬, 한별, 별님, 보람, 힘찬, 하늘, 잔디 등 다양한 우리말 뜻을 담은 특징도 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어울렸지만 성장기에 놀림감이 되고 가벼워 보이면서 혼하다는 이유로 개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sup>34</sup> 또한 포그니(포근+이), 말그미(맑음+이), 가까스로어든노미(가까스로 얻은 놈이다) 등과 같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이름은 어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독창성을 살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드슈(드시오), 놀란스(놀랍다), 타미나(탐이나) 등은 외국어로 들리거나 외국어를 흉내 냈다는 비판도 강하다.<sup>35</sup> 아울러 역학 관점의 좁은 의미 성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운이 전제되지 않은 작명법이라는 성명학계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한글자의 이름짓기는 순수한 우리말인 고유어로 지어서 한자가 없는 한글 전용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말의 좋은 뜻으로 한글 이름을 먼저 지은 후, 한자의 좋은 뜻이나 한자 작명법에 의하여 한자 이름까지 지어서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33 전광, 『우리이름 교과서』(동학사, 2012), 253-265쪽.

34 김만태,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 기복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5(2011), 160쪽.

35 김슬옹·김불꾼·신연희(1994), 앞의 책, 77-79쪽.

## 2) 한글오행 이름짓기

한글오행 이름짓기는 사람의 소리가 오행에 근본을 둔다는 인식 아래 소리글자인 한글 자·모음으로 성과 이름을 오행으로 배속한 후 상생하도록 작명하는 방법이다. 한글소리와 함께 소리의 힘인 음령(音靈) 영동력(靈動力)이 작용하여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언령사상(言靈思想)에 의하여 이름이 당사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성명학 유형이다. 발음인 소리에 주안점을 두어 소리오행, 음령오행, 발음오행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문자인 한글에 중점을 두어 한글오행, 모자음오행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한글오행은 자음 초성 기준으로 성과 이름을 오행에 배속하여 상생하게 하는 간단한 작명법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고난 사주의 격국과 용신(用神)·형상 등을 분석하여 후천적으로 보완할 음양과 오행을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한글 모음과 자음의 조합으로 각 글자가 상생하도록 이름 짓는 모자음(母子音)오행성명학 등으로 개선되기도 했다.<sup>36</sup> 역시 타고난 운명인 사주를 분석한 후 용신을 찾아서 한글은 한글오행으로, 한자는 자원오행으로 작명하는 명리용신(命理用神)성명학도 있으나 용신에 중점을 둔 것만 다를 뿐 작명은 모자음오행성명학과 유사하다.<sup>37</sup>

모자음오행은 첫째,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탕으로 초성 자음 30%, 중성 모음 40%, 중성 자음 30%로 이름 각자의 음양·오행을 살피기 때문에 소리로 구별되는 최소 단위 음절의 일부분인 초성 자음의 음소만 활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났다. 둘째, 이름 각자에서 도출한 오행과 음양을 합하여 타고난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을 찾기 때문에 이름 각자의 초성과 중성, 중성 간 상극되는 글자와 남궁 등과 같이 상극되는 두 글자 성씨도 활용할

36 김만태(2019), 앞의 논문, 86-93쪽.

37 권익기(2018), 앞의 논문, 139-158쪽; 이재승(2019a), 『명리학의 용신에 의한 성명학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239쪽.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문자와 소리에 의하여 음양·오행을 각각 도출한 후 평균값을 취하여 실제 소리 낼 때 문자와 달라지는 오행과 음양의 문제를 해결했다. 넷째, 한글 이름을 지은 후 자음오행으로 한자 이름짓기도 병행하기 때문에 가장 오랜 기간 작명에 활용되었던 자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해결했다.

그러나 한글오행은 많은 작명 현장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순음과 후음의 오행 배속, 자음 초성만 활용, 문자를 소리 내면서 달라지는 음양·오행의 혼란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개선된 모자음오행성명학이나 명리용신성명학에서 활용하는 용신 도출이 곤란하여 작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주에 없는 오행을 활용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억부(抑扶)나 조후(調候), 통관(通關), 병약(病藥), 순응(順應), 격국(格局)으로 도출한 용신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작명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다.<sup>38</sup> 『훈민정음』 해례본을 적용하면서 초·중성 자음과 중성 모음을 모두 활용하는 유형에서는 음가 없는 ‘ㅇ’과 무행 ‘ㅣ’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나 아직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3) 한글소리 이름짓기

한글소리 이름짓기는 태어난 해의 천간·지지와 한글 성명의 획수 음양 및 초·중성인 자음으로 도출시킨 비견·겁재·식신·상관 등의 육친(六親)을 1에서 10의 숫자로 부호화한 주파수의 의미와 상생·상극 등으로 성격과

---

38 김만태(2019)는 이름이 사회적인 용도가 크기 때문에 사주의 전반적인 기세를 좌우하는 육친인 격국과 조화되는 음양·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승(2019a)은 조후와 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후를 우선 적용하고, 상극되는 사주로 양분되어 있으면 통관을 적용하며, 중화에 멀면 억부를, 가까우면 억부와 격국을 동시에 적용하자고 했다. 그러나 실제 작명 현장은 도출된 용신을 같이 적용하거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용신을 우선 적용하기도 하는 등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다.

길흉을 판단하여 이름 짓는 한글 작명법이다. 본고에서는 널리 알려진 파동과 음파, 소리, 파장, 한글구성(口聲), 소리오행, 소리(육친), 소리에너지, 한글분석 등을 포괄하는 한글소리 이름짓기로 유형화했다.

한글소리에서 이름이란 말할 때 공기의 진동으로 생긴 파동이 퍼져나가는 소리이므로 그 진동에 의하여 에너지가 발생되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초·중성 자음 음소만 활용하여 음파인 소리 파동과 무관한데도 오도한다는 근본적인 비판이 존재한다.<sup>39</sup> 애초 한글이 아닌 한자의 획수로 음양을 구분하였고 한자 자의도 인정하였으므로<sup>40</sup> 한글 중심이었지만 한자를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최근 한글소리는 소리만의 한글 이름짓기를 강조하면서 한자는 골라서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한글 작명법이다.<sup>41</sup>

1990년대 전후 이전과 많이 다른 작명법으로 이우람이 기존 이론을 체계화한 후 처음 소개하여 작명권이나 상호권 등에 다툼이 심하고, 자음 음소만 활용하기에 소리에 의한 작명도 아니라는 근본적인 비판을 비롯하여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작명법이다. 한글소리는 보편화되지 않고 극소수만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으나<sup>42</sup>, 강의와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지부 결성 등으로 짧은 시간에 널리 알려져서 작명의 주요 유형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39 김만태(2019), 앞의 논문, 74쪽.

40 이우람,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한나라출판사, 1992), 27쪽; 정보국(1998), 앞의 책, 66·85쪽.

41 이대영, 『이우람식 작명법』(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2017), 304쪽.

42 김남석(2014), 앞의 논문, 56쪽; 안서현(2016), 앞의 논문, 18-19쪽; 신남순, 「현대작명법의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45쪽.

### Ⅲ. 한글소리 이름짓기 고찰

#### 1. 한글소리 이름짓기의 방법

역학 관점 좁은 의미의 성명학이란 개운이 전제된 작명과 성명으로 운명을 추론해보는 이름 풀이로 구분할 수 있다.<sup>43</sup> 과거부터 사용하였던 측자과자성명학, 역상성명학 등은 작명보다 운세 풀이에 중점을 둔 성명학이었다. 현재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81수리와 수리오행, 자원오행, 한글오행은 운세 풀이도 포함되어있지만, 작명 위주의 성명학이다. 한글소리는 작명뿐만 아니라 운세 풀이에도 널리 활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운세 풀이를 중심으로 작명법을 알아본다.

한글소리 이름짓기에서는 육친(六親)을 숫자로 부호화한 주파수에 의하여 운세를 풀이하고 작명하므로 주파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유형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는 주파수<sup>44</sup>는 10대명운, 명운(名運), 회전수, 육친수리, 고정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산출 방법도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1- 고정주파수 찾기

첫째, 이름은 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맞는 소리를 찾아 주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성명 '권익기'의 소리를 찾아서 '권이

1961년생 소띠	… 둘째; 태어난 해
76 3- 8-	… 넷째; 제1고정주파수
권 이 끼	… 첫째; 성명의 소리
짹수 짹수 흠수	… 셋째; 성명의 흠·짹수
58 1- 6-	… 다섯째; 제2고정주파수

43 한글소리 이름짓기는 세부 유형이나 작명가에 따라서 상당히 세분되지만 본고는 파동성명학으로 한글소리 이름짓기를 처음 소개하여 널리 알린 이대영(2017)의 『이우람식작명법』 중심으로 작명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문제점 위주의 연구사항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다른 관련 유형도 참고하여 III장을 작성하였다.  
 44 주파수는 일생의 운세 풀이와 작명에 활용되는 고정주파수와 일년의 운세를 보는 유동주파수로 구분되지만 본고는 작명 중심 고찰이므로 고정주파수만 살폈다.

끼'로 기록한다. 둘째,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만세력에 의하여 출생년도의 끝자리 1를 찾는다. 셋째, 성과 이름을 각자 한글 획수로 헤아린 6, 2, 3을 홀수와 짝수로 분류하여 음·양을 정한다. 넷째, 성과 이름의 초성과 종성 자음으로 먼저 찾은 홀·짝수와 출생년도를 표2에 따라 검색하여 제1고정주파수 **75 3- 8**을 찾는다. 고정주파수는 출생년도의 끝자리, 즉 천간 음양·오행에 의한 천기(天氣)인 제1고정주파수와 출생년도의 띠, 즉 지지 음양·오행에 의한 지기(地氣)인 제2고정주파수가 있다. 제1고정주파수를 먼저 찾은 다음, 다섯째 출생년도의 띠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2고정주파수 **53 1- 6**도 찾으면 된다.

주파수 1-10은 비견부터 정인까지 사주의 육친을 숫자로만 바꾸어 쉽게 표현한 것으로, 제1고정주파수 **75 3- 8**과 제2고정주파수 **53 1- 6**을 찾은 다음, 성명의 운세 풀이가 가능하다. 한글소리에서 당사자의 성격은 이름 첫째 글자 초성 모음 'ㅇ'의 천기(天氣)인 중심 제1고정주파수 **3**(식신)

표2- 고정주파수 조건표

1고정주파수 (천기)	생년		4	5	6	7	8	9	0	1	2	3
	홀·짝수											
ㄱ ㅋ	홀수(양)		1	2	3	4	5	6	7	8	9	0
	짝수(음)		2	1	4	3	6	5	8	7	0	9
ㄴ ㄷ ㄹ ㅌ ㅎ	홀수(양)		9	0	1	2	3	4	5	6	7	8
	짝수(음)		0	9	2	1	4	3	6	5	8	7
ㅇ ㅎ	홀수(양)		7	8	9	0	1	2	3	4	5	6
	짝수(음)		8	7	0	9	2	1	4	3	6	5
ㅅ ㅈ ㅊ	홀수(양)		5	6	7	8	9	0	1	2	3	4
	짝수(음)		6	5	8	7	0	9	2	1	4	3
ㅁ ㅂ ㅅ	홀수(양)		3	4	5	6	7	8	9	0	1	2
	짝수(음)		4	3	6	5	8	7	0	9	2	1
2고정주파수 (지기)	홀·짝수	띠	호랑이	토끼	뱀	말	용·개	소·양	원숭이	닭	돼지	쥐

1=비견, 2=겁재, 3=식신, 4=상관, 5=편재, 6=정재, 7=편관, 8=정관, 9=편인, 0=정인

이 70%, 지기(地氣)인 중심 제2고정주파수 ①(비견)이 30%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주의 육친인 식신과 비견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고정주파수 즉 사주의 육친과 오행의 상생·상극, 과소를 통해 부모·배우자·자식·형제·조부모 등 친가와 처가, 시댁의 가족 관계를 비롯하여 재산·직업·명예·건강·관계 등 생활의 제반 요소까지 해석한다. 성씨 '권'은 25세까지의 초년운을, 이름 첫째 글자인 '이'는 50세까지의 중년운을, 이름 둘째 글자인 '끼'는 50세 이후의 말년운으로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권익기'는 중심 제1고정주파수가 ③(식신)이므로 의식주가 풍요로운 낙천주의자로 온순하고 덕망이 있으나 노력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우나 폭발적이면서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또한 제2고정주파수가 ①(비견)이어서 독립성이 강한 정력가로 고집이 세고 재물운이 없으며 화합이 곤란한 면도 있다. 제1고정주파수가 ⑦(편관) ⑤(편재) ③(식신) 상생으로 초·중년은 좋은 듯하나 편관(⑦) 편재(⑤)의 흉운이 있고 ③(식신)이 ③(정관)을 상극하여 말년에 딸이 좋지 않고 불명예도 예견된다. 제2고정주파수 역시 초년 중년은 ⑤(편재) ③(식신) ①(비견)으로 상생하여 좋은 듯하나 중심 고정주파수가 독불장군 ①(비견)이고 흉운인 편재(⑤)가 있으며 ①(비견)이 ⑥(정재)을 상극하여 말년에 처와 재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글소리로 분석한 '권익기'의 운세 중 초·중년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흉운이 있고 특히 말년은 가족과 재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명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1-육친 상생·상극 관계도



## 2. 한글소리 이름짓기의 문제점

어떤 유형의 작명법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대부분의 작명법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앞으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 한글소리 역시 1990년대 전후에 시작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 옹호와 비판이 혼재하는 작명법이다.

### 1) 소리가 아닌 자음 음소만 활용

한글은 중성 모음 음소와 자음 초·중성 음소가 결합하여 음절 소리가 된다. ‘아’와 같이 중성 모음 음소만으로 음절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중성 모음 음소 없이 자음 초·중성 음소만으로 음절 소리가 될 수는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초성과 중성, 중성이 어울려 이루면 소리의 글자가 된다.”<sup>45</sup>고 합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소리는 중성 모음 음소를 활용하지 않고 소리가 될 수도 없는 자음 초·중성 음소만 활용하면서 소리에 의한 작명임을 주장하여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부 유형에서 중성 모음 음소까지 작명에 활용하며 소리를 찾았다고도 하지만, 아직 초·중성 자음 음소만 활용하는 유형이 일반적이기에 강하게 비판받는 한글소리의 문제점이다.

### 2) 자·모음의 음양·오행 배속 혼란

애초 한글 이름짓기는 자음의 초성 오행만 작명에 활용했다. 한글소리도 자음 초·중성 오행만 작명에 활용했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순음(口ㅂㅅ)과 후음(ㅇㅎ)의 오행 배속만 문제가 있었다. 『훈민정음』 해례

---

45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본은 아음(牙音, ㄱㅋ)을 목(木)에, 설음(舌音, ㄴㄷㄹㅌ)은 화(火), 순음(脣音, ㅁㅂㅍ)은 토(土), 치음(齒音, ㅅㅆㅈ)은 금(金), 후음(喉音, ㅇㅎ)은 수(水)에 배속시켰다.<sup>46</sup> 그러나 작명 현장은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와 같이 순음(ㅁㅂㅍ)을 수로, 후음(ㅇㅎ)을 토에 배속하고 있다.

최현배(崔鉉培, 1894-1970)는 신경준이 “정인지의 서(序)만 보았을 뿐이요, 해례본은 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요량대로 태극설과 한글과의 관련성을 붙여 본 것이다.”<sup>47</sup>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어학자 허웅(許雄, 1918-2004)도 “순음 ‘ㅁ’을 소리 낼 때는 입술이 열렸다 닫히므로 이때의 입 모양을 본떠 ‘ㅁ’자를 만들었다.”고 했다.<sup>48</sup> 최근 한태동(1998)<sup>49</sup>, 김만태(2012, 2015)<sup>50</sup>, 이재승·김만태(2018)<sup>51</sup>, 이재승(2019a)<sup>52</sup>, 조규문(2019)<sup>53</sup> 등과 같이 순음을 토에, 후음을 수에 배속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이 있고, 대부분 성명학 관련 연구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sup>54</sup> 그러나 많은 작명 현장에서는 『훈민정음』

46 『訓民正音』解例本 制字解.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颯,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脣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47 최현배, 『고친 한글갈』(정음문화사, 1982), 624-625쪽.

48 허웅,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샘문화사, 1983), 302쪽.

49 한태동, 『세종대의 음성학』(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37-60쪽

50 김만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5(2012), 79-88쪽; 김만태,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요건에 관한 고찰: 발음오행 성명학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2(2015), 280-294쪽.

51 이재승·김만태, 「한글 순음·후음의 오행 배속에 대한 성명학적 고찰」, 『한국융합인문학』 6(3)(2018), 27-48쪽.

52 이재승(2019a), 앞의 논문, 120-146쪽.

53 조규문, 「한글과 한자 이름의 작명 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97(2019), 201-211쪽.

54 신상용(2012), 앞의 논문, 67-73쪽; 조현아(2014), 앞의 논문, 48쪽; 양창진, 「한글

해례본의 오행 배속을 인정하면서도 성명학의 특성과 관행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sup>55</sup>

한글소리의 일부 유형은 중성 모음 음소까지 작명에 활용하면서 온전한 소리를 찾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음의 음양 배속과 모음의 음양·오행 배속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자음은 오행 배속만 있을 뿐 음양 배속은 없고, 모음은 무행인 ‘ㅣ’를 제외한 기본 모음만 음양·오행을 배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거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표3을 보면, 한글소리 유형인 한글구성성명학은 모음의 경우 음양·오행 배속이 『훈민정음』 해례본과 상당히 다르다.<sup>56</sup>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한 음양·오행을 도출하여 주파수를 찾자는 한글소리의 개선안을 제안한 양창

표3- 한글 자·모음의 음양·오행 배속

구 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甲 양	乙 음	丙 양	丁 음	戊 양	己 음	庚 양	辛 음	壬 양	癸 음
훈민정음	ㄱㅋ		ㄴㄷㄹㅌ		ㅁㅂㅅ		ㅈㅊㅌ		ㅇㅎ	
한글구성성명학	ㄱ	ㅋ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ㅇ
양창진(2017)	ㄱ	ㅋ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ㅇ
모자음오행성명학	ㄱ	ㅋ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ㅇ

성명이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7-8쪽; 구현서, 『훈민정음』과 작명기법의 발음오행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34-54쪽; 신남순(2017), 앞의 논문, 60쪽; 권익기(2018), 앞의 논문, 125쪽.

55 권익기(2018), 앞의 논문, 118쪽.

56 예지연, 『성공하는 이름 흥하는 상호』(신지평, 2014), 40쪽.

진의 경우도 추가 모음에 대한 배속은 거의 없다.<sup>57</sup> 한글오행 유형인 모자음 오행성명학은 ‘ㅣ’와 추가 모음까지 배속한 진전이 있으나<sup>58</sup> 아직 일반화된 견해가 아니고 한글소리는 사용하지도 않는다. 자음의 음양 배속 역시 표3을 보면 한글구성성명학과 양창진, 모자음오행성명학이 서로 충돌될 정도로 상당한 혼선이 존재한다.

### 3) 소리가 아닌 문자를 작명에 활용

한글소리는 소리에 서로 다른 기운이 있으므로 그를 문자화한 한글을 오행에 배속하여 그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작명의 근본 취지이다. 하지만 같은 글자라도 고저, 장단 등 음운과 말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일부 지역에는 “ㅍ”이나 ‘ㅡ’와 같이 사라진 음소나 소리도 존재한다. 가장 우수한 소리글자인 우리 한글도 소리를 완벽하게 문자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글소리는 소리에 의한 작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리를 문자화한 한글에 의해 음양·오행을 배속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문자인 한글 이름짓기이기 때문에 소리의 기운을 이름에 적용한다는 근본부터 흔들린다.

또한 한글소리는 일본의 가타카나, 미국의 영어 등 외국어 경우에도 발음부호를 오행에 배속하여 주파수를 찾으면 성명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어는 발음부호에 의하여 근접하게 소리 낼 수 있을 뿐 정확히 소리 낼 수가 없고, 외국어를 발음부호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도 없다. 우리는 미국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ton을 조지 워싱턴, 조지 와싱턴 등으로 유사하게 발음할 뿐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외국어를 발음부호로 표시하는 것도, 발음부호를 정확하게 소리 내는 것도 어려운데

---

57 양창진(2017), 앞의 논문, 19쪽.

58 김만테(2019), 앞의 논문, 86-88쪽.

외국어를 발음부호에 의하여 음양·오행을 배속하여 이름 풀이한 후 운명을 논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 4) 모호한 사주명리학과와의 관계

한글소리는 사주명리학의 육친과 상생·상극을 활용하여 작명하고 운세를 풀이하지만 사주는 고려하지 않아서 사주명리학과와의 관계가 모호하다. 한글소리를 처음 소개한 이우람은 선천적인 사주와 후천적인 이름의 관계를 강조하여 책명이 『후천운(1987)』이었고,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1992)』의 「사주와 이름의 배합법」<sup>59</sup>에서 사주명리학 이론이 한글소리의 바탕임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글소리는 사주의 영향권을 벗어난 독자적인 학설로 주장하고<sup>60</sup> 있어서 사주명리학과와의 관계는 더욱 모호하다. 그러나 김경란(2019)은 중심 고정주파수와 사주의 통합적인 분석으로 적성과 직업을 제시하자고 제안했고<sup>61</sup>, 애초 이우람이나 노선경(2019)<sup>62</sup>의 주장과 같이 한글소리가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응용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일부 작명 현장에서는 한글소리 이름짓기를 사주작명법으로 명명한 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관계 정립이 더욱 필요하다.

현대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를 태어난 날의 간지인 일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비해서, 한글소리는 태어난 월·일·시도 배제하고 태어난 해의 간지인 연주만 활용한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 조상·부모·가문에서 개인의 타고난 품기와 자질로 바뀌어 사주명리학도 10세기 중반에 조상궁·부모궁인 연주 중심에서 자신과 배우자궁인

59 이우람(1992), 앞의 책, 52-64쪽.

60 이대영(2017), 앞의 책, 91쪽.

61 김경란, 「성명학의 '중심고정운'과 직업의 관계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73-76쪽.

62 노선경, 「성명학의 세운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28-54쪽.

일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sup>63</sup> 일주 중심의 분석 소견을 밝히는 연구도 있지만<sup>64</sup>, 생년의 간지가 생월과 생일, 생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면서<sup>65</sup> 타고난 해의 천간·지지인 연주를 중심으로 대부분 분석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 5) 활용도가 낮은 작명법

사주명리학뿐만 아니라 동양술수학은 상생뿐만 아니라 상극도 중요하지만 한글소리는 상극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초·중성이 상극되는 글자 강, 갱, 경, 공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이 글자가 성씨이면 작명법을 적용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다행히 복식판단법으로 이치를 터득하거나 출생 원기에 맞으면 상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의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 초·중성의 오행 배속과 성명의 한글 획수 음양이 같은 김소윤, 김수현, 김지은, 금재현 등은 전혀 다른 이름이지만 운명은 똑같이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1960년생과 2020년생은 60년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마다 순환하는 60갑자의 특성 때문에 동일 유형의 이름으로 운명도 같이 해석되는 비상식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sup>66</sup> 또한, 같은 성씨이면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한글소리가 추구하는 제일 좋은 이름이 하나이므로, 모두 그 이름으로 지어야 하는 모순에도 빠진다. 모음까지 활용하면 좋은 주파수도 늘어나겠지만, 편관, 편인 등 사용하기 곤란한 주파수도 늘어나 오히려 작명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

---

63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15쪽.

64 노선경(2019), 앞의 논문, 105쪽.

65 이우람(1992), 앞의 책, 34쪽.

66 김만태(2019), 앞의 논문, 82쪽.

도 발생한다.

#### 6) 문자와 소리가 다를 경우 적용

이름은 지은 후 문자로 기록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한글의 자음 오행과 글자의 획수를 사용하여 음양·오행을 분류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유형이고 자·모음의 음양·오행을 구분하는 유형도 있으므로 한글소리 이름짓기는 소리와 문자를 동시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때 문자와 소리가 같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권익기를 권이끼로 소리내는 것과 같이 종성과 초성의 충돌로 글자와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나, 柳씨가 유씨인지 류씨인지 등 문자와 소리에 혼선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성명학계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면서 표준어 발음법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인정되는 관습이나 기준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면 된다고 한다.<sup>67</sup> 한글소리는 소리나는 대로 권이끼로 적용하고, 맞춤법은 유씨가 맞지만 성씨 사용은 대법원 예규로 2007년 8월부터 예외가 인정되어 류씨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발음법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고 관습이나 기준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자나 지역에 따라서 동일 문자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문자와 소리가 다를 경우 음양·오행을 소리가 아닌 한글 문자에 의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은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 7) 획수 사용과 산정 문제

한글소리 이름짓기는 주파수 도출에 성명 각자 한글 획수의 홀·짝수에

---

67 권익기(2018), 앞의 논문, 120-122쪽.

의한 음양을 활용한다. 작명에 문자의 획수를 사용하는 것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산정 방법 또한 통일되지 않았다. 한글학회에 문의하여 1획은 ㄱ·ㄴ·ㅇ, 2획은 ㄷ·ㅅ·ㅈ·ㅋ, 3획은 ㄹ·ㅁ·ㅊ·ㅌ·ㅎ, 4획은 ㅂ·ㅍ이라는 회신을 받고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여 고딕체 인쇄 글자의 모양 획수가 타당하다며 한글소리 이름짓기는 ㅈ을 3획, ㅊ을 4획으로 달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8·69</sup> 하지만 이는 너무 주관적인 견해이다. 애초 한글소리는 음양 도출에 한문 획수를 사용하다가<sup>70</sup> 한글 획수로 대체했으나 여전히 획수 사용과 산정 방법은 문제가 있다. 한자는 원획법과 곡획법, 필획법에 따라 다른 획수가 원획법으로 의견이 집약되어가고 있으나<sup>71</sup> 한글은 글씨체나 사용자에 따라서 획수가 다르고 이의 연구도 미흡해서 해결이 쉽지 않다. 최근 작명은 초·중성 자음과 모음까지 활용하면서 자·모음 자체를 음양으로 구분하여 해결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글 획수의 홀·짝수에 의하여 음양을 도출하는 유형도 존재하기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 8) 기타사항

한글소리는 사용하는 용어의 명칭이 이상(異常)하다는 비판이 있다. 작명법의 명칭으로 음파, 소리, 파동(波動) 등을 사용하지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글은 자음만으로 소리가 될 수 없고 소리가 아닌 한글 문자에 의한 이름짓기이므로 이들과 무관하다는 강한 비판이 존재한다.<sup>72</sup> 이름짓기

68 이대영(2017), 앞의 책, 94-95쪽.

69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여 ㅈ을 3획으로 보는 등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70 이우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대한성명학회 출판부, 1991), 90쪽; 정보국(1992), 앞의 책, 49쪽.

71 권익기(2018), 앞의 논문, 76-77쪽.

72 김만태(2019), 앞의 논문, 74쪽.



와 풀이에서 고정주파수, 유동주파수, 중심 고정주파수 등을 강조하지만 한글소리의 주파수란 육친을 1-10의 숫자로 바꾼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주파수(周波數) 의미인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sup>73</sup>와 의미가 전혀 다르다.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소리는 어떠한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뿐 의미가 없는 소리에 기운이 담겨서 전달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74</sup> 그러나 이와 달리 아름다운 음악과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좋은 얼음 결정이 나온다는 것<sup>75</sup> 등 소리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실험이 있고, 소리만 존재하는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한다. 소리가 아닌 초·중성 자음만 활용하는 한글소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소리인 초·중·중성 모두를 활용하는 개선까지 감안하면, 부르기 쉽고 듣기 편한 것이 우선인 이름에서 소리가 영향이 없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sup>76</sup>

한글소리가 자의(字意)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역시 있다. 소리글자인 한글 이름을 지은 후 뜻글자인 한자는 짓지 않고 골라서 사용하자는 유형이 대표적이므로<sup>77</sup> 자의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글소리 작명 현장에서는 한글의 뜻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대부분 작명가는 자원오행작명법 등의 한자 이름짓기로 뜻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판받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자의는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고 보편적인 작명의 요소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7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74 김기승, 『자원오행성명학』(다산글방, 2007), 5-9쪽.

75 에모토 마사루 저, 홍성민 역, 『물을 답을 알고 있다』(더난출판, 2017), 19-23쪽.

76 권익기(2018), 앞의 논문, 122-123쪽.

77 이대영(2017), 앞의 책, 304쪽.

최근 한글소리의 연구가 늘어났지만,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한글소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학술논문이 없는 반면에, 학위논문(석사)만 6편으로<sup>78</sup> 한글소리를 옹호하는 주관적 논문이 많다는 지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일부이고, 가정풍파와 생리사별이 99%라는 중심 제1고정주파수 남자 1, 2와 여자 3, 4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과 중심 제1고정주파수가 이혼자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김형일(2014)<sup>79</sup> 등의 논문을 간과했다는 항변도 있으므로 비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다만 향후 한글소리의 연구가 옹호 수단이 아닌 검증과 비판을 통한 학문적 이론 정립과 개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 IV. 맺음말

---

이름은 소리와 문자가 존재하는 보편성이 있고,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특수성도 있다. 애초에 이름은 형식 없는 고유어 소리로만 존재하다가 토착 문자로 기록된 후, 신라 경덕왕대(742-765) 한자가 유입되어 정착하면서 상층부터 중국식 한자 이름이 정착한다. 세종 28(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여성과 상층 이외 계층을 중심으로 한글 이름의 역사도 시작된다. 그러나 상층이 중국식 한자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였기에 조선시대에 한글 이름은 일반화되지 못했다. 모든 국민이 성과 이름을 갖게 된 1909년 「민적법」 시행 후, 1923년 일제가 한글 전용

---

78 2020년 5월 15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용인색인(KCI)에서 확인한 안중희(2014), 양창진(2017), 정성우(2018), 안기송(2019), 노선경(2019), 김경란(2019)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79 김형일(2014), 앞의 논문, 147-150쪽.

이름은 등록조차 거부하여 한자와 한글이 병용되는 이름 체계가 고착화되고 강압적 창씨개명으로 한글 이름은 암흑기를 맞는다.

한글 이름짓기도 세분하면 유형이 많지만 크게 나누면 한글자의와 한글오행, 한글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1940년대 창씨개명 전후 일본식 수리성명학과 함께 소개된 후,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에 따른 오행 배속으로 한글오행은 수리성명학의 보조 수단 등으로 1950년대부터 일부에서 활용된다. 국권 회복 이후 1960년대부터 한글 단체 중심으로 우리 고유어의 뜻으로 한글 전용 이름을 짓자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한글 자의(字意) 유형이 다시 자리잡는다. 1990년대 전후 한글 이름이 유행하면서 미완성으로 존재하던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법 체계가 세워져 한글소리도 알려지기 시작한다.

개운을 전제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성명학인 한글자의는 작명이 쉬워 문제점이 많지 않고, 한글오행도 선행연구가 상당히 발표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지만, 한글소리는 문제점 위주의 비판적 연구가 거의 없다. 한글소리 이름짓기는 태어난 해의 천간·지지와 한글 성명의 획수 음양 및 초·중성인 자음으로 도출시킨 육친을 숫자로 부호화한 주파수의 의미와 상생·상극 등으로 성격과 길흉을 판단하여 이름짓는 한글 작명법이다.

한글소리는 소리가 아닌 자음 음소만 활용하고, 자·모음의 음양·오행 배속 혼란, 소리가 아닌 문자를 작명에 활용, 모호한 사주명리학과의 관계, 활용도가 낮은 작명법, 문자와 소리가 다를 경우 적용, 획수 사용과 산정 문제, 이상(異常)한 명칭 사용, 영향 없는 소리, 자의 미반영, 미흡한 연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미 일부는 초·중성 자음뿐만 아니라 중성 모음까지 음양·오행을 분석하여 소리를 반영하고 있고, 한글소리로 한글 이름을 지은 후 자원오행 등으로 한자 이름도 짓고 있다. 사주명리학을 바탕으로 인정하고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모자음오행성명학과 같이 이름 각자와 성명 전체의 대표 오행을 자·모음의 비율로 도출하여 성명 각 글자가 상생하게 작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명 현장에서는 한글소리 역시 문제점의 인식과 개선보다 스스로 최고의 작명법으로 단정한 후 홍보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급급하다. 동의도 어렵지만 동의된 문제점의 개선도 성명학의 특성이나 관행, 주관적인 경험이나 통계에 의해서 대부분 배척당하여 논의도 쉽지 않다. ‘권익기’를 한글소리로 분석한 결과 좋지 않은 말년이 예견되어 개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당사자인 논자는 분석한 과거가 너무 달라서 미래 역시 믿을 수 없으므로 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는 사견일 뿐이고 잘못된 분석에 불과하다며 한글소리 성명학계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성명학은 부르기 쉽고 듣기 편하며 세련되고 오래 기억되면서 좋은 뜻으로 개운하는 이름이 최고의 지향 목표이지만 어떤 유형이 적합한 성명학인지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모든 작명법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글소리의 문제점은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는 무리한 비판도 있지만, 소리가 아닌 자음 음소만 활용하고 주파수 등 이상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개선해야 할 비판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쉽지 않은 개운까지 객관적인 검증과 개선을 통하여 학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정립할 것을 제언한다.

본고는 한글 이름짓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한 점과 여러 세부 유형 중 특정 유형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모든 한글소리 이름짓기와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 역시 갖고 있다. 향후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약속드리면서 한글소리 이름짓기가 최고 작명법이 될 그 날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燕山君日記』, 『訓民正音』.

《연합뉴스》.

### 2. 단행본

김계홍, 『신성명학철리』. 평문사, 1957.

김기승, 『자원오행성명학』. 다산글방, 2017.

김슬옹·김불꾼·신연희, 『한글 이름짓기 사전』. 미래사, 1994.

남시모, 『동자삼 작명학』. 가림출판사, 2000.

백재현, 『음파메세지 성명학』. 삼한출판사, 2002.

서소옥, 『정통 성명학』. 이담, 2017.

에모토 마사루 저, 홍성민 역, 『물을 답을 알고 있다』. 더난출판, 2017.

예지연, 『성공하는 이름 흥하는 상호』. 신지평, 2014.

이대영, 『이우람식 작명법』.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2017.

이우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대한성명학회 출판부, 1991.

\_\_\_\_\_,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 한나라출판사, 1992.

\_\_\_\_\_, 『후천운』. 그루, 1987.

임삼엽, 『작명 백과사전』. 삼한출판사, 2007.

전광, 『우리이름 교과서』. 동학사, 2012.

정보국, 『정보국의 작명보감』. 밀알, 1992.

조봉우, 『비전 성명대전』. 명문당, 1973.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1982.

한태동, 『세종대의 음성학』.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허 응,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3.

熊崎健雄, 『姓名の神祕』. 東京: 紀元書房, 2009.

### 3. 논문

구현서, 「『훈민정음』과 작명기법의 발음오행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 2017.
- 권익기, 『한국 성명학의 작명 관련 비판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김경란, 「성명학의 '중심고정운'과 직업의 관계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기승·이종훈, 「훈민정음 한글발음의 성명학 적용 논점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 2019, 160-172쪽.
- 김남석, 「성명학의 표의적, 표음적 이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만태, 「모자음오행의 성명학적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 2019, 69-98쪽.
- \_\_\_\_\_,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 성명학의 영향」. 『동아시아문화연구』 55, 2014, 131-160쪽.
- \_\_\_\_\_,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 기복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5, 2011, 151-186쪽.
- \_\_\_\_\_,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요건에 관한 고찰: 발음오행 성명학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2, 2015, 273-299쪽.
- \_\_\_\_\_,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5, 2012, 55-94쪽.
- 김슬용, 「한글이름(인명)의 새로운 범주화와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 12(2), 2004, 29-50쪽.
- 김종택, 「한국인의 성명정착 과정연구」. 『국어교육연구』 23, 1991, 1-33쪽.
- 김형일, 「성명학 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자 통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노선경, 「성명학의 세운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박병찬, 「우리말 이름짓기의 실태와 전망: 여보,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새국어교육』 35, 1982, 21-44쪽.
- 박승목, 「성명학의 이론 정립과 과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남순, 「현대작명법의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신상용, 「성명학의 작명원리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안서현, 「성명학에서의 작명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양창진, 「한글 성명이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재승·김만태, 「한글 순음·후음의 오행 배속에 대한 성명학적 고찰」. 『한국융합 인문학』 6(3), 2018, 27-48쪽.
- 이재승, 「명리학의 용신에 의한 성명학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a.
- \_\_\_\_\_, 「성명학에서 한글오행 적용의 난제에 대한 해결적 고찰」. 『인문사회21』 10(1), 2019b, 931-945쪽.
- 이정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변화 양상들」. 『역사민속학』 49, 2015, 88-122쪽.
- 이종훈, 「훈민정음 한글발음의 성명학적 적용 문제점 고찰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정정순, 「성명학의 유래와 작명원리에 관한 연구: 명리학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조규문, 「한글과 한자 이름의 작명 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97, 2019, 191-219쪽.
- 조현아, 「성명학의 작명원리에 있어서의 오행연구: 훈민정음해례본과 현재 작명법에 적용되는 한글 오행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범훈, 『한자차용고유인명 표기체계연구: 금석문·고문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 4. 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5. 기타자료

- 朝鮮總督府 法務局 編纂, 『朝鮮戶籍及寄留例規』. 鮮光印刷株式會社, 1943.

## 국문초록

우리 이름은 고유어 소리로만 존재하다가 문자로 기록된 후, 한자를 유입하면서 상층부터 한자 이름이 정착한다.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한글 이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일반화되지 못하고 일제가 등록조차 거부하여 암흑기도 있었다. 한글 이름짓기 유형은 자의와 오행,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한글오행은 1950년대부터 일부에서 활용되었고, 한글자유의는 1960년대부터 일부에서 다시 사용되었으며, 한글소리는 199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한다.

한글소리는 태어난 해의 천간·지지와 획수, 자음으로 도출한 육친인 주파수의 의미와 상생·상극 등으로 운세를 판단하는 작명법이다. 한글자유의는 작명이 쉬워서 문제점이 적고, 한글오행은 선행연구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였으나 한글소리는 비판적 연구조차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자음 음소만 활용, 음양·오행 배속 혼란, 문자를 작명에 활용, 사주명리학과와 모호한 관계, 낮은 활용도, 문자와 소리가 다를 경우 적용, 획수 문제, 이상한 명칭 사용, 영향 없는 소리, 자의 미반영, 미흡한 연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미 일부 유형은 모음까지 음양·오행을 반영하고 있고, 자의도 활용하는 등 개선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명 현장은 문제점 인식과 개선보다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수익 극대화에만 급급하다. 한글소리 이름짓기의 문제점은 무리한 비판도 있지만, 개선해야 할 비판도 분명히 있다. 이에 우리는 한글소리 이름짓기의 발전을 위해서 도출된 문제점의 검증과 개선을 통하여 학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고일 2020. 6. 9.

심사일 2020. 11. 5.

게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한글 이름짓기(Hangeul Naming), 한글소리 이름짓기(Hangeul-Sori Naming), 한글자유의 이름짓기(Hangeul-Jaui Naming), 한글오행 이름짓기(Hangeul-Ohaeng Naming), 성명학(Naming Science), 작명(Naming)



## Abstracts

### A Critical Study on the Hangeul-Sori Naming

Kwon, Ik-ki

From the very beginning, our name existed in a native language and recorded as a letter. And then, Chinese characters name has been settled from the upper class since Chinese characters introduced. The history of Hangeul name begins with the proclamati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However, Hangeul names did not generalized well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re was also the dark age when Japanese imperialism refused to register the names. Hangeul naming can be divided into Hangeul-Jaiui(字意) Naming, Hangeul-Ohaeng(五行) Naming and Hangeul-Sori Naming. Hangeul-Ohaeng were used by some in the 1950s, Hangeul-Jaiui were reused by some in the 1960s, and Hangeul-Sori began to be known in the 1990s.

Hangeul-Sori is a naming method that determines a person's fortunes by means of frequency, Sangsaeng(相生)·Sanggeuk(相剋). The frequency is Yukchin(六親), which is derived from consonants, number of strokes, and Cheongan(天干)·Jiji(地支) of the year of birth. Hangeul-Jaiui had fewer problems because it was easy to name, and precedent research derived a lot of problems from Hangeul-Ohae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hardly any critical studies of Hangeul-Sori. Therefore,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such as using only consonant phonemes, confusing in the assignment of Yin-Yang(陰陽)·Five-Elements(五行), using letters in the naming, the ambiguous relationship with Saju-Myeongli Science(四柱命理學), low utilization, applying when characters and sounds are different,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strokes, strange names, sounds without effect, not reflecting literal meaning and insufficient research.

Certain methods already reflect Yin-Yang and Five-Elements to vowels and improvements are made on utilizing the literal meaning. However, in the field of naming, people focus on maximizing profit through self-confidence rather than acknowledging problems and improving them. This paper looked into the issues in this field, where some unreasonably criticized that sounds doesn't affect us but there were constructive comments that pointed out the issues on using only consonant phonemes and using strange names such as frequency.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Hangeul-Sori Naming, we need to establish and set up an academic system through verifying and improving up to the derived problems and Gaeun(改運).